보도자료

APC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배포일시	2026년 11월 9일(월)	보도시점 (분량)	즉시 (4페이지)
담당부서	경영지원실 대외협력과	보도자료 담당자	하만재(051-745-3947, 010-9316-7299)

아태기후센터(APCC), 페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 협력과 현장 소통' 두 마리 토끼 잡아!

▶ 주페루 한국대사관·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 「2026 한-페루 기후변화 협력 포럼」 성황리 개최

▶ 현지 지방 조례 제정을 통한 신규 농업기후관리플랫폼(PGA)* 공식 출범 및 농민 실습·캠페인 실시

▶ **페루 농가의 기후회복력 강화 및 농업생산성 향상 적극 지원**

* 농업기후관리플랫폼(PGA): 페루 기상청과 농업부가 함께 운영하는 민관 소통 거점으로, 지역 농업기후회보(Boletín Agroclimático)를 매달 발행함. 페루 기상청의 기후전망을 바탕으로 지방정부·농업기관·농민대표가 정기적으로 모여 영농 위험을 점검하고, 파종 시기 조정, 가뭄에 강한 품종 선택, 방재 대책 등 맞춤형 영농 권고를 결정해 농가에 전달하는 '지역 공동의 의사결정 도구' 역할을 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원장 하경자, 이하 아태기후센터, APCC) 소속 연구진과 ㈜웨더피아로 구성된 페루 사업팀은 지난 10월 10일(토)부터 24일(토)까지 14박 15일간의 페루 제2차 현지 협력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공협력 시범사업인 '페루 지역사회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후정보서비스 개선 사업(사업기간: 2025.12.~2027.10.)'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2차 현지 활동은, 지난 4월 1차 방문 당시 파악한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현지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 홍보를 펼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페루 사업팀은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지난 10월 13일(화)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2026년 한-페루 기후변화 협력 포럼」**을 꼽았다. 지난 2024년 12월 발효된 '한-페루 기후변화협정'의 후속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기획된 이번 포럼에는 페루 기상청장,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페루사무소 관계자, 양국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양국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이행 경험과 우선순위를 공유했으며, 아태기후센터와 한국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페루 기상청(SENAMHI), 페루 해양청(IMARPE) 전문가들이 기후정보서비스 개선 및 엘니뇨 대응 등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한국의 기후위기 적응 경험을 공유해 페루의 국가정책을 지역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할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페루의 주요 농업 지역인 푸노(아코라), 아야쿠초(아코크로), 람바야케(모투페)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활동을 진행하였고, 현지 농민 17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기후관리플랫폼(PGA, 민관 소통 거점) 지역 농민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일방적인 강의에서 벗어나 농민들이 기후정보를 스스로 농사에 적용해 보는 실습 중심으로 꾸며졌다. 아코크로 지역의 신규 참여 농민들은 주요 농작물별 '작물달력'을 직접 작성해 보며 파종과 수확 적기를 판단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지난 1차 교육을 수료한 푸노와 모투페 지역 농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장도일(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온도의 누적 값)' 변화를 실제 농사에 적용하는 심화 실습을 진행하며, 경험에만 의존하던 농사에서 벗어나 과학적 기후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무엇보다도 신규 플랫폼 설립 대상지였던 아코크로 지역에서 '농업기후관리플랫폼(PGA) 설립을 위한 지방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역 내 최초의 플랫폼이 공식 출범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이번 **사업 총괄 책임자인 아태기후센터의 유진호 선임연구원은 플랫폼(PGA)의 성공적인 설립을 이끈 공로로 현지 지방정부 단체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기술지원을 넘어, 현지 지방정부가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일반 지역 주민들에게도 기후정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아코라 광장과 모투페 광장에서 지역 주민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기후관리플랫폼(PGA) 인지도 향상 캠페인'을 펼쳤다. 홍보 부스를 열어, 날씨와 기후의 차이, 작물달력 활용법 등을 주제로 한 OX 퀴즈, 지역 농작물 연계 룰렛 게임, 누리소통망(SNS) 포토존 이벤트 등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기후정보 활용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크게 끌어올렸다.

기술 및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실무 협의도 한층 구체화됐다. 페루 기상청과의 협의를 통해 정보 제공자와 수요자(농민)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매뉴얼' 개발과 페루 기상청 실무진의 한국 초청 연수 프로그램 일정을 확정 지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 농민의 기후정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페루 기상청이 서비스를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2일(목)에는 페루 기상청 본청 및 지방청 관계자들과 함께 최종 활동 공유 워크숍을 열고, 2차 현지 활동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다.

아태기후센터 하경자 원장은 **"이번 2차 현지 방문을 통해 한-페루 기후변화 협력 포럼에서 양국 간 기술 협력의 틀을 다지고, 현지 농민들이 기후정보를 실제 농사에 바로 활용하는 법을 익히도록 도울 수 있어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아태기후센터의 기후예측 기술이 페루의 사전 대비형 기후정책 수립 및 농가의 기후회복력과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1. 2026년 한-페루 기후변화 협력 포럼



▶ 지난 10월 13일(화) 페루 리마에서 열린 '2026년 한-페루 기후변화 협력 포럼'에서 페루 기상청장,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페루사무소 관계자, 아태기후센터 연구진을 포함한 양국 전문가 등 80여 명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아태기후센터 유진호 선임연구원이 지난 10월 13일(화) 페루 리마에서 열린 '2026년 한-페루 기후변화 협력 포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정보서비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 농업기후관리플랫폼(PGA) 지역 농민 역량강화 워크숍



▶ 아태기후센터 정유란 선임연구원이 지난 10월 15일(목) 페루 푸노에서 열린 '농업기후관리플랫폼(PGA) 지역 농민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현지 농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가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아태기후센터 신용희 선임연구원이 지난 10월 20일(화) 페루 모투페에서 열린 '농업기후관리플랫폼(PGA) 지역 농민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모투페 지역 농민들과 함께 주요 농작물별 생장도일 적용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